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9/17(土)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통신, 인터넷 등은 **배포즉시 보도**  
- 이 자료는 **과기정통부와 공동배포** 됩니다.

문의: 샌드박스지원팀 최현중 팀장(010-4708-4811), 심준열 대리(010-8740-4818)

## 모빌리티 혁신 통해 개인·소상공인 수익창출 지원

-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16일 개최 ... 총 10개 과제 중 대한상의-과기정통부 6건 합작
- 캠핑카 공유 서비스 : 캠핑카 안 쓰는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고 수익 창출
- 화물차 디지털 사이니지 : 디스플레이를 화물차에 부착하고 광고 내보내면 광고수익 공유
- 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 공유킥보드를 무선충전 스테이션에 주차하면 인센티브 얻어

### <ICT 샌드박스(9/16)를 통과한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

캠핑카 주차·관리문제로 골치를 썩던 A씨는 캠핑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장점은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동 주차시설에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어 주차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 점검 서비스가 받을 수 있어 유지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경기도에서 화물운송법인을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전기화물차를 구매했다. 전기화물차의 측면에는 디스플레이가 부착돼 있다. B씨가 차량에 부착된 디스플레이에 지역 광고를 내보내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 B씨는 기존에 화물차량도 개조해 광고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C씨는 공유킥보드를 대여기로 했다. 마침 역 근처 ‘공유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에서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A씨는 짧은 여행을 마치고 무선충전 스테이션에 킥보드를 다시 반납했다. 길거리에 킥보드를 주차해놓는 대신, 무선충전 스테이션에 반납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에 캠핑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광고용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화물트럭과 키보드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열고 ①~②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디테크게엠베하, YONGHA) ③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이노션) ④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애드) ⑤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LG전자) ⑥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SKC·유테크) 등 6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행정·공공·민간 모바일 전자고지 등 4건도 함께 승인, 총 10건을 승인했다.

<표> ICT 샌드박스 승인과제(9/16)

사업모델	기업	특례유형	비고
①~②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디테크게엠베하, YONGHA	실증특례	대한상의
③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이노션	실증특례	대한상의
④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애드	실증특례	대한상의
⑤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LG전자	실증특례	대한상의
⑥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SKC·유테크	실증특례	대한상의
⑦ TWMS를 이용한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노넷 등	실증특례	
⑧ 행정·공공·민간 모바일 전자고지	아이엔텍	임시허가	
⑨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아이싸이랩	실증특례	
⑩ 개인형 이동수단 및 전기자전거 충전 스테이션	포인테크	실증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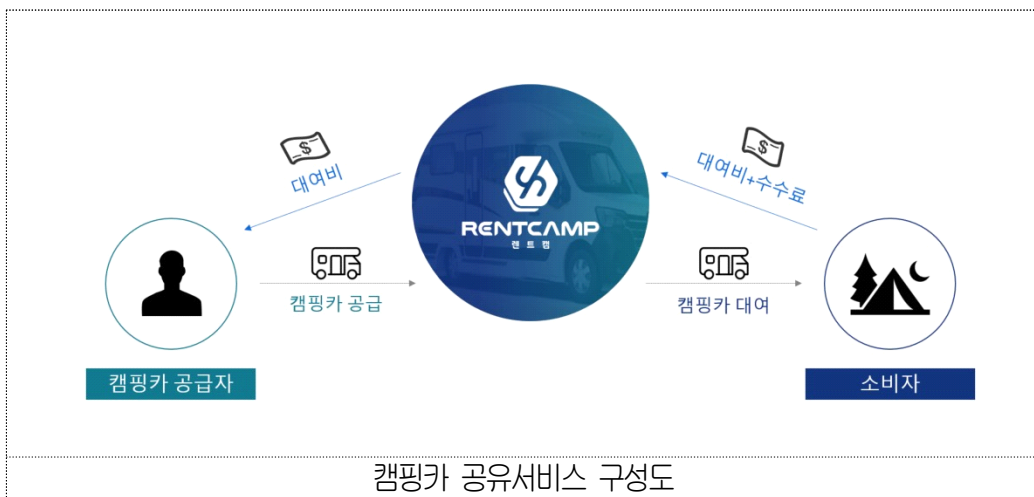
### 유휴 캠핑카를 개인 간 공유하는 ‘캠핑카판 에어비앤비’ 실증

캠핑카를 소유한 개인이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서비스(디테크게엠베하, 용하 등 2개사)가 실증에 돌입한다.

서비스 방식은 ① 캠핑카 소유자가 차량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한다. 이때 신청기업은 캠핑카 소유자를 대신해 지자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고한다. ② 캠핑카 대여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 후 운전면허증을 등록한다. ③ 대여자는 캠핑카를 예약·결

제한다. ④ 대여자가 캠핑카 차고지를 방문하면, 신청기업은 운전면허증을 재차 확인하고 차량을 대여한다. ⑤ 대여자가 캠핑카 사용 후 반납하면, 신청기업은 캠핑카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을 회수한다.

캠핑카 소유자는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캠핑카 대여자 역시 기존 캠핑카를 하루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대비 약 50%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캠핑카 공유서비스’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여행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미국 캠핑카 공유 업체 아웃도어시(Outdoorsy)는 누적 거래액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넘기며 성장했으며, 일본의 카스테이(Carstay)도 총 3천만 엔의 투자를 받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캠핑카 공유서비스’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사무실을 확보한 후 지자체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캠핑카 차량을 1대 혹은 2대 보유한 개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플랫폼기업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개인을 대표하여 지자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고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심의위는 “캠핑카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캠핑 등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소규모 캠핑카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점검, 캠핑카 대여자

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디테크계엠베하와 용하는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캠핑카 약 500대를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시작하고, 향후 실증결과에 따라 공급차량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

###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 승인

이노션과 애드가 신청한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화물차 우측에 디스플레이를 부착(제작·개조)해 보행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이 송출 가능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치된 센서를 통해 화물차 우측에 다른 차량 진입을 감지하여 광고송출을 조절함으로써 안전운행을 도모한다.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디스플레이에 영상, 광고, 정보 등의 콘텐츠를 표시하고, 네트워크로 해당 콘텐츠들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미디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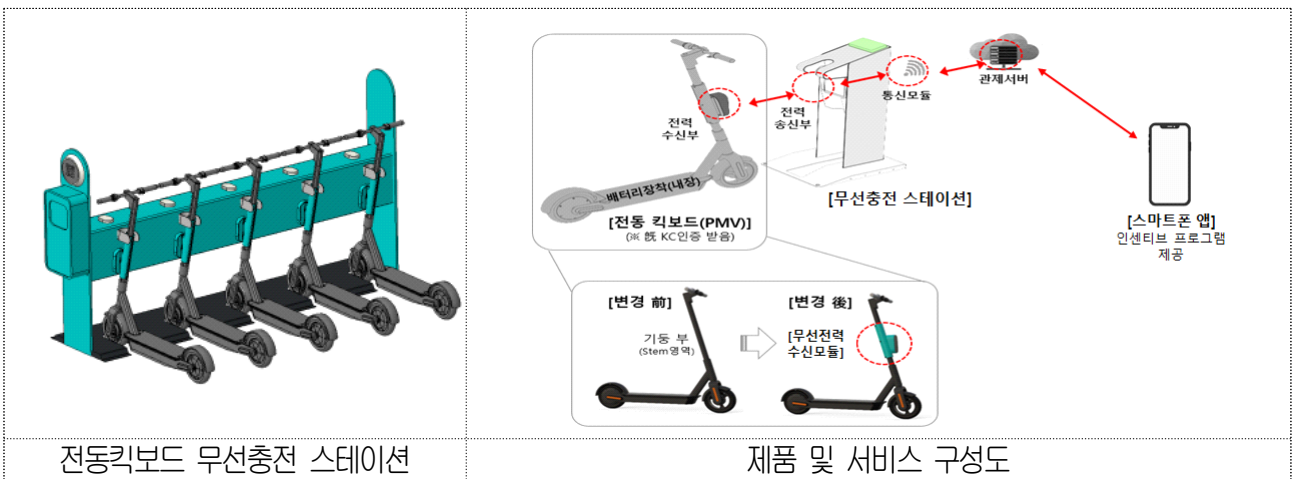
중국, 영국, 일본에서는 버스, 택시 등 차량외부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한 글로벌기업은 애틀랜타, 댈러스 등 대도시에서 차량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광고를 송출, 운전자에게 부수입을 가져다줄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현행법상 화물차 측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디지털 광고물 송출, 등화장치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차량충종량이 증가되는 튜닝이 금지되어 디스플레이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영상정보 취득도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화물차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소상공인 광고채널 확대, 화물차주의 수익 확대, 디지털광고 기술 서비스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보행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만큼 고속도로 주행, 50km/h 이상 주행, 주차 시 광고송출을 중단하고 차량 안전성 확보, 빛공해 방지 등을 조건으로 했다. 이노션과 애드는 조건들을 준수하면서 서울, 경기 등에서 실증을 진행 할 계획이다.

###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으로 킥보드 길거리 주차 예방

LG전자와 SKC·유테크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도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선충전 스테이션에 주차하는 사용자에게는 제휴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제품 및 서비스 구성도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도 국내법상 불가능한 모델이다. 전과법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된 주파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무선전기충전기의 안전 인증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기를 보도 위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과기정통부-국표원-경찰청이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과기정통부는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에 필요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표원은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무선충전기를 보도 위에 설치

할 수 있다고 적극해석을 내렸다. 이어, 심의위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전동킥보드 길거리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며 특례를 승인했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시장은 20개 이상의 업체가 뛰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며, 전체 9만대 이상의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이다. 대부분의 국내 공유사업자들은 특정 반납 장소가 없이 자유롭게 대여와 반납을 하는 도크리스(Dockless)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도크리스 탓에 산업의 급성장 이면에는 길거리 방치로 인한 무질서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전망이다.

SKC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전동킥보드 1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LG 전자는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충청도 천안시 일대에서 15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andbox.korcham.net> 에서 상담가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공유캠핑카 서비스, 공유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등 공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다수 통과했다” 며 “규제애로를 해결해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초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 [참고]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① 신속확인 ② 실증특례 ③ 임시허가 ④ 적극해석으로 나뉜다.

① 신속확인은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를 허용한다.

②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③ 임시허가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 허용한다.

④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해석도 있다.